

고령화가 만드는 변화들

남재량*

베이비부머들이 50대에 진입하기 시작한 10여년 전부터 50세 이상의 연령층이 크게 증가했다. 이들 연령층의 취업자 증가세가 인구 증가세를 능가함에 따라 50대 연령층의 고용률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50대 이상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는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들 베이비부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당장의 생계 유지와 자녀 교육에 바빠 은퇴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다. 50대 연령층은 최근 들어 30~40대 연령층에 육박할 정도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

60대 연령층의 사정은 다르다. 고용률은 낮고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다. 근로조건 격차도 크다. 노인 빈곤 문제의 징후가 엿보인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률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다. 폐지 좁은 노인들의 규모가 175만 명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개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데 그치지 않는다. 난관을 헤쳐 나가려는 의지가 큰 청·장년 시기가 아니라 고령에서 생활고를 겪는 많은 노인들은 삶 자체를 버거워한다.

한국의 고령화는 그 어떤 나라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는 고용구조를 고령층 위주로 급격히 재편시키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야기할 것이다. 고령화는 비단 나이가 든 사람이 많아진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고령층 세대 내의 구성원 변화도 수반한다. 50~60대 베이비부머는 이제 60~70대가 되는 기존의 50~60대 연령층과 가치관, 행동양식,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 그리하여 단순히 일자리를 둘러싸고 전에 없던 현상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 곳곳에서 새로운 현상들이 발생할 것이다.

연금이 정치적 쟁점이 되고 이들의 복지 욕구를 둘러싼 정치학은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3년 전과는 차원을 달리하여 전개될 것이다. 베이비부머들이 파도처럼 지나가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jmam@kdi.re.kr).

며 만들어내는 한국 사회의 변화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요즘의 공무원 연금개혁을 둘러싼 소음과 3년 전의 복지공약 경쟁 과정에서 우리가 목격한 장면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비하면 매우 가벼운 전주곡이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아직 그 본 모습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베이비부머들이 성장하던 1960~70년대에 학교의 스냅샷은 콩나물 교실이었다.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입시가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 다행히도 이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요즘의 청년층처럼 취업 걱정은 하지 않았다. 한국경제가 고속성장을 구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립을 도모할 때에는 주택문제가 심각했고, 200만호 건설이 대통령 선거 공약이어야 했다. 50대에 이르러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왕성한 경제활동 욕구를 보이며 근 10년간 취업자 증가의 주역으로 뽐내고 있다. 과연 이들의 활동성은 60대에도 그리고 70대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

고령화는 산업지형의 변화도 초래할 것이다. 기술진보가 만들어낼 차세대 상품인 웨어러블 기기와 로봇은 고령화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새로운 기회들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60대와 70대 나아가 80대에도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기초가 될지도 모른다.

고령층이 직면하게 되는 빈곤을 비롯한 각종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이나 이들의 직업의식과 정치성향 등은 다가오는 한국사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예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베이비부머에게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KLI**